

수태율 향상을 위한 암소관리

가축개량사 서 기 석
(충남 공주군 축산업협동조합)

농가에서 한우, 우유, 육우를 사육하는데 계류식 사사가 아니면 적은 면적의 운동장과 저질의 조사료 특히 볏짚과 농후사료만으로 사육하고 있는 실정에서 번식을 목적으로 할 때 난점이 많이 발생하여 몇가지를 기술하여고자 하며 농가를 상대로 일선에서 인공수정사로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순방한 경험에 의하여 기술 하는 것 뿐이지 어떠한 문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랄 뿐이다.

가축의 번식은

첫째. 건강이다.

건강하지 않고는 번식을 기대할 수가 없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우리가 흔히 공기나 음수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생명력을 유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요 다음이 음수이다.

불결한 환경은 병균의 가장 적절한 서식처이며 악취 또한 가축을 괴롭혀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생명을 위협한다.

둘째, 축체의 영양상태가 좋고 고루 축적되어 있어야 가장 효과적인 번식을 기대할 수 있다.

칼로리의 섭취 뿐만 아니라 단백질(특히 아미노산군, 비타민군, 무기물군을 고루 섭취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열량의 과다 섭취는 비만이 되어서 발정을 억제하고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지속 발정을 초래한다. 비타민이나 무기물의 부족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기생충의 감염은 섭취한 모든 영양분의 손실을 가져오며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우리나라 한우의 45%가 간질에 감염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간질 외에 촌충, 위충 등 기타 기생충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두수의 감염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으며 이는 발정을 약화시키고 수태율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모체 및 태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환경에서 수태율을 높이려면 저의 농가상대 체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술하면

1. 충분한 운동을 시켜야 비만을 억제하고 자외선 조사로 살균이 되고 비타민D의 공급으로 Ca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등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2. 구충을 하여야 모든 영양분 손실을 막아 주어 생산성을 높여준다. 즉 발정, 수태, 임신 유지, 태아의 영양 등 효과적이다.

3. 초식동물은 조사료(청초, 건초, 담근먹이)를 충분히 급여(청초: 최소 1일 체중의 10~15%, 건초는 청초의 1/4) 하고 농후사료의 과급을 피해야 한다.

농후사료 과급은 지속 발정을 초래하여 수정적기 포착이 어렵다.

이상 세가지 조건만 완전히 구비하였다면 암소로서는 거의 완전한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양관리를 하지 못하였을 시는 발정 정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분만 후 50~90일이 경과 했거나 번식적령기(한우 250kg 육우 및 우유 350kg 정도)에도 무발정이거나 미약 발정이 오는 경우에는 우선 구충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합구충약을

사용하되 제약회사에서 권장하는 양보다 다소 과다복용 시켜야 양호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다. 한우는 분만 후 20~30일에 복용시키면 90일 이내에 발정이, 미경산인 경우 복용 후 성성숙 초기 달성이 대부분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으며 도입우(유우, 육우)에서는 구충이 없이는 양호한 발정 징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 국내산 유우나 도입우에서는 미약발정은 구충을 시켰다 하더라도 조사료를 과소 급여하고 농후사료를 과다 급여하였을 경우 운동을 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즉 운동장의 불결은 운동의 부족이 더욱 두드러지고 미약발정이 많았으며 도입우의 경우에는 둔성발정(발정생리 현상은 이루어지나 발정 징상은 나타나지 않거나 아주 미약할 때)이 많이 발견되었다.

● 농후사료를 과다 급여하고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일반적으로 많이 채식하지 않음) 했을 때 발정 지속 시간이 48~7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으며 발정 말기 이후 수정으로 수태는 가능했다.

● 도입우에서 초기 구충과 충분한 조사료 급여, 적량의 농후사료 급여는 일반적으로 번식 적령기 이전에 수태가 가능했으며 일반적으로 성질도 온순하여 졌다.

● 일반적으로 농후사료 급여량에 따라 발정 지속시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급여량이 많을수록 길었다.

● 모든 우군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였으나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시키지 않는 기간에 차이는 있었으나 하지않는 것보다 발정지속 시간이 길었으며 구충을 안한 것은 기생충 감염수의 차이에 따라 미약발정 내지 발정 지속시간이 짧았다.

● 생활장소의 불결은 저수태의 원인이었다. 생식기 염증, 난소낭종 등 생식기 질병이 다발하였으며 육안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적기 수정을 시도했다고 판단되는데도 수태가 되지 않는 등 수태율이 지극히 불량했다.

● 황체낭종의 경우 염증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충을 하고 비타민을 급여하고 충분한 운동과 청조를 급여 하여 낭종이 자연치로 되는 것을 목격했다.

● 국내산 우군은 발정 종료후 즉시 수정하는 것이, 도입우에서는 발정 종료 직전 수정 하는 것이 수태율이 높았으며 국내산은 농후사료 과급으로 발정 지속 시간이 길어 배란이 지연 되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사료된다.

(주소: 충남 공주군 장기면 도계리252 풍덕골)

주소변경 통보를 바랍니다.

월간 낙농비육회보는 협회에서 직접 우편으로 회원여러분께 보내드리기도 하고 유업체나 낙우회를 통하여 배부하기도 합니다. 협회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대부분의 회원 성명 옆에다 아라비아 숫자로 된 회원번호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회보를 받으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의 회원번호를 기재하시고 변경된 주소와 남유업체를 함께 적으셔서 협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유업체나 낙우회를 통해서 구독하시는 분께서도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유업체나 낙우회에 연락하여 주고 금년도 회비를 4월중으로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가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韓國酪農肥育協會 홍보실